

다니엘의 책 - 번호 64

예언의 베일을 벗기기: 2001년 9월 11일을 인침의 때, 늦은 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과 연결짓기

Jeff Pippenger
2024-01-28

최근의 글들에서 우리는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지목하는 예언의 신의 몇몇 구절을 언급해 왔다. 그 기간 동안에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밝혀 주는 몇 가지 예언적 예증들이 있다.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니엘 8장의 올래 강 환상으로 묘사되며, 화이트 자매는 그 올래 강 환상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역은 다양한 예언적 용어로 표현된다. 그것은 다른 예언적 표현들과 더불어, 인침의 때, 늦은 비, 구원의 마감 사역, 그리고 성전의 정결로 묘사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함께 종합하고, 또한 그것들을 올바른 역사적 맥락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이 분노하되, 그 분노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음성 능력에 더해 주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저술, 85쪽.

"셋째 천사의 사역"은 또한 "구원의 사역"이며, 이는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시기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주의 진노가 임하였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고, 주의 종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와 큰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요한계시록 11:18.

열방은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이다) 분노하지만, 열방이 분노할 때에도 그들은 또한 '억제되고' 있다. 열방이 분노하는 그 '때'는 구원의 마무리 사역의 시작을 가리키며, 그 구원의 마무리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것이다.

주님의 사업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마음에 지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언제나 죄를 그 본래의 죄악된 성격 그대로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읽매는 죄들을 신실하고 분명하게 다루는 편에 항상 설 것이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십사만 사천이 인치는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의 잘못을 가장 깊이 느낄 것이다. 이는 각기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든 사람들의 형상으로 마지막 일을 묘사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해 힘 있게 드러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중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증언 3권, 266쪽.

민족들은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렇게 억제되고 있는 격노한 민족들은 바로 그 동일한 기간 동안 억제되는 네 바람으로 묘사되며, 그때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탄은 이제 이 인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현재의 진리에서 떼어놓고 그들을 흔들리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환난의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위에 덮개를 드리우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 있고 마음이 청결한 모든 영혼은 전능자의 덮개로 덮임을 받게 되어 있었다.

사탄은 이것을 알았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 흔들리고 확고하지 못하도록 큰 권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나는 사탄이 바로 지금 이 인침의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를 돌리고, 속이며, 그들을 멀어지게 하려고 일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현재의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 있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덮개가 그들 위에 덮일 수 없었다.

"사탄은 인침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 위에 덮개가 씌워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부터 피할 피난처 없이 그들이 남겨지도록, 그들을 그 자리에 묶어 두려고 갖은 술책을 다 부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백성 위에 이 덮개를 씌우기 시작하셨으며, 머지않아 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얻게 될 모든 사람 위에 그것이 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사탄에게도 또한 역사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초기 저술, 43, 44.

화이트 여사는 1851년에 이 말을 썼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들어가 "일곱 때"의 더 큰 빛을 거절함으로써 인침의 과정을 지연시키기 5년 전이었다. 그 빛은 더욱 밝아져, 일곱 마지막 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역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과 광야 방황이 예표한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자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 가운데 구원받을 라오디게아인이 있음을 밝히는 본문이 어디에 있는가? 답은 "아무도 없다!" 라오디게아인은 광야에서 죽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14만 4천의 인침은 일정한 기간이며, 그것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을 때 시작된다. 그때는 또한 열국이 분노하되 제지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인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 재앙의 때에 굳건히 서도록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며, 그 준비는 그분의 백성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으로 표현되고, 또한 구원의 사업을 마치는 것과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비유로 표현된 준비는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기초한다.

"현재의 진리"를 위해 "굳게 서지" 않으려는 이들은, 마음이 "현재의 진리"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요하던" 이들도.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현재의 진리를 위해 굳게 서지 못하는 몇몇을 보았다.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이처럼 떨고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덮개가 그들 위에 드리워질 수 없었다."

"현재의 진리"는 "덮음"을 제공하며, 그 "덮음"은 또한 "하나님의 인"으로 상징된다. "하나님의 인"은 히브리인들의 문을 덮은 피로 예표되었는데, 그 피는 문이 그 피로 "덮여" 있는 집들을 멸하는 천사가 넘어가도록 했다. "덮음"은 곧 "인침"이며, 그 "인침"은 "현재의 진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John 17:17.

모든 개혁 운동은 저마다 고유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십사만 사천의 개혁 운동의 주제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다. 마지막 때의 "현재의 진리"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각 세대에 특별히 적용되는 진리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6년 6월 29일.

이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현재 진리의 "메시지"이며, 네 바람이 붙잡힐 때 인침의 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열방이 분노한 것은 2001년 9월 11일이었고, 그 시점에 14만 4천의 인침이 시작되었는데, "메시지"인 늦은 비가 봉함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한에게는 교회의 경험 속에서 깊고도 감동적이며 전율케 하는 장면들이 열려 보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와 위험과 투쟁과 최후의 구원을 보았다. 그는 이 땅의 추수를 익게 하여, 하늘의 곡간에 들여질 곡식단이 되게 하거나 멸망의 불에 던져질 장작단이 되게 할 마지막 메시지들을 기록하였다. 그에게는 지대한 중요성을 지닌 주제들이, 특히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오류에서 진리로 돌아설 이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에 관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시되었다. 이 땅에 닥쳐올 일들에 관하여는 아무도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열방들이 분노했을 때 그들은 동시에 제지되었고,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그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현재의 진리"의 메시지이다.

"배틀크리크에서의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요양원의 지도자들은 불신자들과 어울려, 다소 그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왔지만,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일하러 가는 것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통찰력이 없다. 절망과 전쟁과 유혈의 영이 있으며, 그 영은 때의 끝이 임할 때까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침을 받자마자—그 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리에 굳게 뿌리내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맞을 준비가 되자마자, 그것이 올 것이다. 실로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땅 위에 임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 Manuscript Releases, 제10권, 252쪽.

"인침"은 "진리에 굳게 정착하는 것"이다. 인침의 때라는 맥락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절망의 영, 전쟁과 피흘림의 영이 있으며, 그 영은 때의 아주 마지막까지 증가할 것이다." 민족들이 분노할 때 그들은 제어될 것이지만, 네 바람으로 묘사된 "전쟁과 피흘림"은 "때의 아주 마지막까지 증가할 것이다." 셋째 화의 이슬람은 때의 아주 마지막까지 그 전쟁을 점진적으로 격화시키며, 14만 4천의 개혁에서 "주제"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예언적 이해도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증대한다. 이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진적 격화는 동일한 기간 동안의 늦은 비의 부어짐과 병행한다. 이는 늦은 비가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한때 덮는 그룹으로서 사탄에게 주어졌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하여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신다. 금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잔에 계속 공급하셔서 그것이 깜박이다가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이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별들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모욕을 받으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영혼 속에 부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려는 금기름을 거절한다.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는 부르심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한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자신들이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생애는 파멸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간청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금관들을 통하여 금기름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난다." Review and Herald, July 20, 1897.

늦은 비는 "뿌러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완전히 쏟아지는 데까지 이른다. 늦은 비의 "뿌러짐"은 비가 "한정되어" 내리는 것으로 지칭되며, 완전한 쏟아짐은 "한량 없이" 쏟아질 때이다. 화이트 자매는 늦은 비가 내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고 어떤 이들은 받지 않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때 비는 "한정되어" 내리거나 "뿌러지는" 상태이다.

일부 사람들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 뿐일 것이다.

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것이지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복과 회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는 그 능력의 나타남 속에서, 그들은 눈먼 상태에서 그것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만 여기며, 그것에 저항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기대와 이상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해 동안 이 일에 몸담아 왔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그들은 말한다. 하나님의 기별의 경고와 간청에 응답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라나타, 219

“많은 이들이 크게 이른비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제공하신 모든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 결핍이 늦은비로 보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장 풍성한 은혜가 부여될 때 그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겠다고 한다. 그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지식을 주심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하신 일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모든 더러움을 비워 성령의 내주를 위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 제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여주심을 준비했다. 지금 또한 같은 일이, 다만 더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사람은 축복을 구하고, 주께서 자신과 관련된 일을 완전케 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른비가 상징하는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받은 빛에 따라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덕목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서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비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마음 위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 507.

그 문단에서 그녀는 “가장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질” 때가 있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때를 지적한다. 그 사실과 관련하여, 그녀는 자신들이 가진 빛대로 살아가는 이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된다고 밝힌다. 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빛(곧 현재의 진리)은 점진적으로 증가함이 분명하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녀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으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 메시지, 곧 늦은 비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빛의 조각들을 거두어 모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귀히 여길 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61:11 인용.]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7권, 984.

성난 열국이 제지될 때, 늦은 비는 ‘분량대로’ 주어지기 시작한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말은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질 때를 가리킨다.

열방이 분노하되 아직 억제되고 있을 때,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만, 그때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되어” 내린다. 그 비는 알곡과 가라지를 모두 성숙에 이르게 하며, 늦은 비는 현재의 진리라는 기별로서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예언적 개념은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2001년 9월 11일에 늦은 비가 “뿌러지기” 시작했고,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도착하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영원히 분리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고조된다.

그때 지혜로운 자들이 기치로 높이 들어 올려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불러내고, 이어서 늦은비가 한량없이 부어지며,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내린다.

"나는 네 천사가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네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할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36쪽.

네 바람을 붙잡아 두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도록 그가 허용하시는 점점 격화되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를 나타낸다. 네 천사는 144,000명이 인침받는 때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지만, 그 기간에도 '절망과 전쟁과 유혈의 영'이 있으며, 그 영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마지막 사람까지 인침을 받으면, 미가엘이 일어서고 네 바람이 완전히 풀려나며, 일곱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 곧 다니엘 9장의 "환난의 때", 즉 거리와 성벽이 완공되는 때가 바로 "열방이 분노할" 때이다. 그 기간 동안 늦은 비가 "분량"으로 부어질 것이다. 이사야는 늦은 비가 측량되는 때를 지목하며, 그 때를 "동풍의 날"이라 부른다. "동풍의 날"은 2001년 9월 11일이었다.

늦은 비의 '측량'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박국의 거룩한 판들 위에 이슬람의 세 화로 표현되어 있는 밀러의 꿈에 나오는 보석은 말세에는 밀러가 처음 그것을 모아 엮었을 때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 번은 뉴욕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이, 더 높이 치솟았고,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자기들의 재원을 투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계획과 궁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곧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를 망각했다.'

이러한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수록, 소유주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웃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쓸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가혹한 수탈과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착취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기록되며, 모든 불의한 거래와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더 이상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우뚝 솟아 있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든 것처럼 모조리 타 버렸다. 소방차는 파괴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장비를 가동할 수 없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교만하고 야심에 찬 인간들의 마음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구원하는 데 강하던 그 손이 멸하시는 데에도 강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지시를 받았다. 어떤 지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기적 야망을 좇은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보응을 내리시기로 정하신 때가 오면, 건물을 세울 때 어떤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들을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증언』 제9권, 12, 13.